

詩, 그 秘義의 언어들

‘非詩의 시대’를 거스르는 시의 열풍

崔夏林
시인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시집이 잘 팔린다는 사실이 문제될 것은 없다. 소설이 잘 팔리고, 에세이가 잘 팔리고, 사회과학서적까지도 몇만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우리의 독서현상 가운데서 시집만이 고고하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말란 법이 없고,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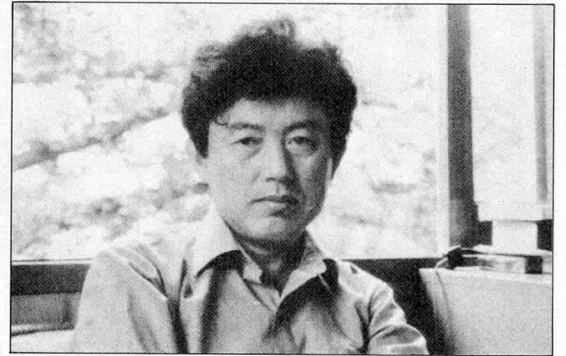
사실 시집은 서적류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것의 하나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노래(시)를 배우면서 자라고, 소설이나 사회과학 책을 듣기 전에 시와 에세이를 읽는다. 따라서 시는 인간의 가장 애절한 문학형식이자 근원적인 것의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은 오늘 우리가 ‘시집 붐’에 놀라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을 절할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6.25 직후의 趙炳華의 「사랑이 가기 전에」가 그 경우이고 尹東柱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金素月的 「진달래 꽃」도 같은 예에 속한다. 이는 또 우리나라의 현상만이 아니다. 일본의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의 시집은 趙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도 그러고 있으며, 시를 유난히 사랑하는 러시아의 경우, 인기있는 시집이 출판될 때마다 시집을 사려는 고객들로 책방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바람에 교통의 혼잡을 가져올 정도라고 한다. 에세이의 시집을 보면 ‘우리는 시를 사랑하는 아시아 사람’이라는 귀절이 나오거니와, 그 나라에서는 광장 같은 곳에서 시인들의 시낭

독이 종종 열려 대군중이 운집한다고 한다. 부러운 입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시집이 30~40만부나 팔렸다고 이렇게 문화계가 소란스러운가. 시집이 너무 많이 팔린 데 대한 흥분 때문인가. 아니면 시집이란 잘 팔려서는 안 되는 것, 시인이 自費출판하여 시인들이 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 시집은 판매라는 물량 가치가 덧붙여져서는 안되는 정신적인 것이라는 일반의 통념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 때문인가. 아마도 그 ‘소란스러움’은 전자 때문이기도, 후자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집이 잘 팔린다는 사실에서 연원하고 있는 이 ‘소란스러움’은 축제의 디오니소스적 광란이자 아폴로적 비관행위가 따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집이 잘 팔린다는 사실은 에세이의 말처럼 아시아인이 아무리 시를 사랑하는 종족이라 해도, 이 非詩적인 시대에서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20세기는 시의 시대는 아니다. 20세기는 영화의 시대이며, 르포르타주의 시대이다. 소설까지도 이제는 20세기적인 예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긴 소설들, 특히 「장길산」이나 「고요한 동강」 「토지」와 같은 대하소설들은 여간한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읽어내기가 어렵다. 적어도 소설은 티보테의 말마따나 19세기 부르조아들이 할일없이 담배나 피우면서 소일거리로 읽어나가는 예술형식인 것이며, 시의 경우는 소설보다도 더욱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祭司長이며 족장이

“대격동의 시기에는 한 사회의 핵심적 心象을 붙잡아 몇마디 비의적 언어로 그리는, 시 같은 정서적이며 총동적인 형식이 소설에 비해 훨씬 더 기능적이다.”



며 정치지도자가 하늘을 향하여 종족의 바람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언어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 속에는 아직까지도 음악성과 고도의 상징성, 秘義性이 내재되어 있다. 시에 있어서의 언어가 일반적인 의미로서 작용하지 않고, 말과 말의 울림에 따라서 뉘앙스를 형성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컨대 ‘깃발’을 그리는 시귀로서 ‘그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을 때, 깃발과 아우성은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詩行에서 ‘깃발’과 ‘아우성’이 조우하고 반향하면서 그것은 그리움의 크기, 소망의 벽참 같은 것을 나타내준다. 이와 같은 비의적인 언어형식이 이 산문적이며 비평적이며 과학적인 시대에서 기능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기껏해야 저 광고의 선전문, 신문이나 TV의 타이틀 같은 데서 타락된 형식으로 유용성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퇴조한 “격동의 詩시대”

그렇다면 시의 시대는 이제 끝장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해마다 대량 쏟아져 나오는 시인 인구의 급증현상과 시집의 베스트셀러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된단 말인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없듯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과가 있다면 결과를 낳은 원인은 있어야 된다. 시집이 잘 팔린다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본다.

한국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는 대격동의 시기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속도에 끌려가면서 살 때는, 그 시대를 구체적으로 표상해야 되는 소설과 같은 형식은 불평하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급변하는 모습을 소설은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반면에 그 시대의 心象을 붙잡아서 그것을 몇마디 비의적 언어

Understanding Movies

영화의 이해

루이스 자네티 著/김진해 譯

영화의 물리적 특성인 <사진>에서부터 추상적인 <이론>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전과정이 실려 있어 영화학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깊이 있는 접근을 가능케 한다. 또한 350여 장의 참조사진은 분석의 깊이를 더해 주고, 권말에 실린 용어해설은 개념과 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사진/화면구성/동작/편집/음향/배우연극/문학/기록영화/전위영화/이론
● 부록 (영화대본)/용어해설
(크라운판/520면/12,000원)

원형출판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7의 5
☎ 362-5022·5033·5533

문화축매

*현암신서 85

운동론

이중환·김문환 共著

이 책은 문화축매운동의 기본개념 및 그 본거지로부터의 지향과 현장적 프로그램화의 사례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운동의 필요성과 현실적 여건이 분석검토되고 있는 본격 문화운동서이다. 특히 수자로 나타나는 지포문 화와 실제 문화현실의 심각한 괴리인식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근원적 통찰을 담고 있는 본서는 문화적 삶의 출발에 선 우리에게 이론과 실재를 운용하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신국판/330면/4,400원)

원형출판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27의 5
☎ 362-5022·5033·5533

韓國 佛敎 美術 史 論

황수영 편

한국불교미술의 전체적인 분야에서 그 동안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한 불교미술의 본격 논문집.

● 본문 320/사진 140/값 9,000원

民族社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

시간절약·노력절약

온라인 컴퓨터 사식조판 시스템 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진영

733-5755

- 컴퓨터 사식
- 일반사식
- 광고기획
- 편집·제작 대행

로 그리는 시같은 서정적이며 충동적인 형식은 훨씬 더 기능적이 된다. 3·1운동 직후의 폐허, 백조파의 시라든가 해방직후의 시들, 4·19 직후의 시들이 그같은 현상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이다. 다시 말하자면 격동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학형식은 격동의 시가 보다 더 합당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격동의 시대의 문학장르인 격동의 시들이 사실은 김지하의 「황토」를 마지막으로 퇴조하고, 「사랑의 시」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일련의 서정시들이 득세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같은 질문을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과 서정윤의 「홀로서기」가 초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만나게 된다. 이 시집들은 적어도 격동의 시대에 짝지은 격동의 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 시집들은 격동의 시가 아니다. 이 시집들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시이며 사랑의 시이다. 「접시꽃 당신」이 「앞서간 아내 구수경의 영전에 못다한 이 말들을 바칩니다」라는 헌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나, 「홀로서기」가 사랑에 마음설레는 외로움으로부터 씩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파배·허무·아픔의 慰安

이 시들은 70년대의 참여시의 전통을 잇는 격동의 시와는 다르다. 그 시들은 70년대의 참여시적 전통을 거스르고 개인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통의 이름과 거스름이 반드시 상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70년대에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를 잃어버렸는가”라고 조세희가 말했듯이, 격동의 시에 뒤이어 나타난 이 사랑의 시들은 상실과 희생의 아픔을 쓰다듬고자 하는 자기 위안적인 면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독자들에게 의외로 빨리 파급되어, 오늘의 시집 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시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테마이고, 그 중에서도 男女相悅之事의 서정시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정시란 거칠게 말하자면 男女

相悅之事의 시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그런데 70년대의 억압과 저항이라는 극한적인 사회구조는 ‘상열지사’를 개인적이고 향락적인 형식으로 도덕적 지탄을 사회가 행함에 따라 우리 시는 어둠과 불, 싸움, 노동, 통일 등의 이데올로기적이며 외향적 현실을 극복하는 시들을 쓰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5월 광주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갑자기 사회전반에는 허무주의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 같은 패배·허무·아픔은 위안의 손길을 내면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그 위안은 사랑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접시꽃 당신」이나 「홀로서기」가 폭발적인 판매성을 보이게 됐다고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이제 독자들은 높은 소리가 낮은 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도종환의 시들을 보면서 이 점을 다시 우리는 확실히 보도록 하자.

당신의 무덤가에 패랭이꽃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루봉 넘어 날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앞에 소지 한장 올리고 오면
당신은 초저녁별을 들고 내 뒤를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가에 노래 한 줄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레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위에 눈물 한 올 던지고 오면
당신은 빗줄기되어 속살에 젖어 오네

아내와 사별한 뒤 아내의 무덤에 패랭이꽃을 두고 오면서 쓴 시이다. 그가 무덤에 꽃을 두고 왔다는 것은 그가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으며, 부재한 아내의 기억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면은 “당신으로 인해 비어 있는 진리마다 깊디깊은 침묵이 있습니다”든가 “정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등 이 시집의 도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시인에게 비이며 밤별이며 풀벌레이며 여름꽃이며 산맥이며 눈발이었던 아내의 존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끝내 이 세상의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영원한 삶의 보배가 참으로 많음을 당신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 시인은 이 세상에 왔다는 그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합니다”라고 말하게 되고,

올해도 꽃진 들에 역새풀 가을 겨울 흔들리고
올해도 살얼음 이는 강가 새들은 가고 없는 데
구름 사이에 별이 뜨듯 나는 쓸쓸히 살아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 이 쓸쓸한 삶의 직시, 이것은 그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아내로부터 실제로 떨어져 갔다는 것이다. 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고 조금도 낯설지가 않다. 우리는 이 시집을 읽자마자 그 사랑의 이야기에 빨려들어가게 되고, 그 슬픔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슬픔을 쓰다듬어 주고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도종환의 아내의 병사→그리움→쓸쓸한 자기 삶의 발견이 기실은 현대사의 질곡으로부터 민족국가 건설하려는 시민의 열화와 같은 바람→항거→패배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윤의 「홀로서기」에서도 이 위안의 손길은 역연하게 느껴진다. 그의 시들은 도종환과 같은 이별이나 상실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으나 예감에 가득찬 시인의 촉수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의 만남과 이별을 읽으면서 떨고 있다.

스쳐 지나는 단 한 순간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야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햇빛조차
나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어느 시에서나 그의 짝이 될 여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짝은 플라톤적

인 완전성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길에 있어서 그것은 필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만남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헤어짐을 생각한다.

눈이 내리면 만나보리라
마지막을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용기와
웃으며 이길 수 있는 가슴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눈오는 날엔.
헤어짐도 만남처럼 가상이라면
내 속의 그 누구라도 불러보고 싶다.

이같은 만남의 욕구와 헤어짐의 욕구는 그로하여금

슬픔은 홀로 슬퍼하고
외로움은 속으로
속으로 삭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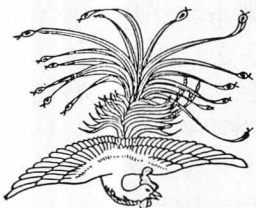
이라는 다짐을 갖게 하고, 그같은 쓸쓸한 다짐은 때때로 잠언과 같은 시를 그로하여금 쓰게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시.

아무것도 없는 호수를 가졌다.
이 호수를 버릴 데가 없다.

그 호수는 슬픔이 고인 곳일 터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버릴 길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앞의 시에서처럼 마음속으로 삭일 수밖에.

위에서 우리는 도종환과 서정윤의 시를 통해서 무엇이 베스트셀러의 요인인가를 더듬어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상실과 그 슬픔이다. 그리고 그 슬픔은 3·1운동 이후의 폐허-백조파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위안과 꿈꾸기라는 두 개의 동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시대의 파고가 드높을 때마다 내면으로 은신해 들어가는 동굴이기도 하다.

귀머거리 나무꾼이 들려주는
옛날 옛날 한옛날 이야기



“大人の 나라
君子の 나라
神仙의 나라”

잃어버린 민족의 神話, 민족의 原型을 되찾는다!

한민족太古史·설화소설 대동이

大東夷



● 백두산에 거하며 無爲로 세상 다스린 神人·仙人·真人들의 이야기 ● 중국 古代 神話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이동족이다.
● 대동이족은 신성족(神聖族)이었으며, 남방 중원에 내려가 政事(政事)를 펼쳐 황토족(黃土族)을 教化(教化)했다.

꼬장꼬장한 선비 박문기가 들려주는
우리의 뿌리 이야기

귀머거리 나무꾼으로 자처하며 초야에 묻혀 살고 있는 꼬장꼬장한 선비 농초(龔樵) 박문기는 수많은 史書와 經書, 옛 문헌을 섭렵하면서 맑은 눈으로 태고적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정신을 발굴하여 잃어버린 民族神話를 복원하였으니 ‘설화소설 大東夷’는 바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우리의 뿌리 이야기이다.

정신세계사 733-3135-7